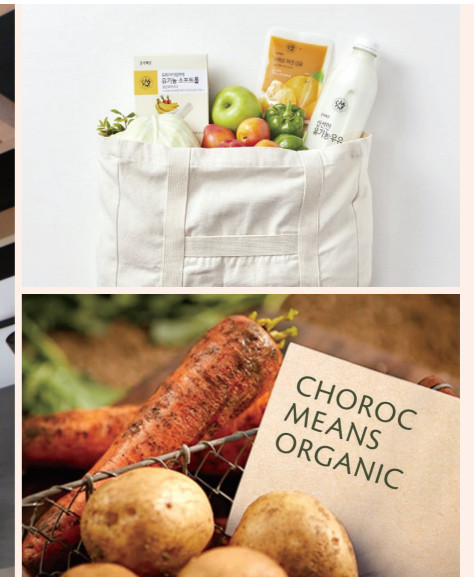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의 대표주자 초록마을

1999년 설립된 초록마을은 국내 대표 친환경 유기농 전문 기업이다. 업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첨단 물류시스템으로 친환경 식품 전문 매장의 전국 운영을 실현하며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지와 농가를 발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해 생산량 증대 및 생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IT 기술 접목으로 더 발전하는 초록마을

친환경 식품 업계의 리딩 기업으로 25년 차를 맞이한 초록마을은 탄탄한 오프라인 역량을 바탕으로 IT 기술을 적극 도입해 더욱 빠르고 역동적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2002년 마포점 개점을 시작으로 2015년 연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친환경 유기농 전문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수인 380개 근린형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에 익숙해진 새로운 고객들을 위해 자사몰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초록마을은 산지 및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함이 입증된 상품을 취급하는 한편 업계 최고 수준의 자체 식품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품이라도 최종 판매 전까지 유기농산물 판별시스템과 잔류농약 검사, 방사능 검사, 미생물 검사, 중금속 검사 등을 진행한다. 또한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한 자체 인증제도 '초록개런티'를 도입,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매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7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매일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초록마을 상품은 PB(자체 브랜드)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약 20년간 축적된 친환경 유기농 식품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존 시장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 신상품 기획 시 지역 상생 및 친환경 농축수산물 판로 개척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2020년 경상북도 및 2021년 강원도에 이어 2022년 전라남도, 안동시 등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 생산자들과의 역량과 신뢰에 기반한 초록마을만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국 단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냉장 보관 상태를 최적화한 전용 물류센터와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객들이 매일 신선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전국 1일 배송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올해 2월에는 기존 물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수도권, 대전·세종·천안 등을 중심으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주문량 예측을 고도화하고, 미리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고객 주문부터 배송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되던 리드타임을 최대 1일로 대폭 단축했다. 아울러 주문 당일 인근 매장에서 바로 배송되는 매장배송 시스템을 강화하며 고객 경험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INTERVIEW



김재연 (㈜초록마을 대표이사)

초록마을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조사 결과에서 4년 연속(총 13회째) 식품전문점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한 약 12만 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브랜드 자산을 조사한 결과 4년 연속 선정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1999년 설립돼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 시장의 저변확대를 이끌며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 온 초록마을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최대 강점인 '식품 안전' 및 '높은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IT와 데이터 역량을 이식해 '고객 경험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들에게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경험을 제공해 친환경 식품 시장과 초록마을의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